

第139回 臨時會

市政質問・答辯

大田廣域市議會

沈 鉉 榮 議員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大德區 第1選舉區

목 차

| | |
|----------------------------------|----|
| 1.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 5 |
| 2. 대전 1·2 산업단지 관련 | 15 |
| 3.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 28 |
| 4. 자치구 개발 편차 관련 | 38 |
| 5. 오정동 위생처리장 관련 | 40 |
| ----- 서 면 질 문 ----- | |
| 6. 새로운 입시제도 관련 | 47 |
| 7. 인성교육 관련 | 53 |
| 8. 제5대 교육감 선거에 따른 공직자 중립대책 관련 .. | 58 |
| 9. 대전외국어고등학교 부지관련 | 60 |

대덕구 제1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동을 주는 민본 행정의 기수로서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대전시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염홍철 시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아니하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에 헌신해 오신 홍성표 교육감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직생활을 통하여 시민에게 헌신·봉사하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대화동 인접에서 교육자님들 몇분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주민 몇분이 오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염홍철 시장과의 일문·일답

질 문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민생현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유가는 치솟아 원가는 올라가고 매출은 떨어지는 등 체불임금은 쌓이게 되어 결국 빈사상태가 되는 회생불능 업체가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영세상인들의 형편은 더욱 심각한 지경입니다.

매출은 바닥인줄 모르고 자꾸 떨어지는가 하면 고객은 대형 마트에 빼앗겨 여기저기 점포정리라는 글자만이 가게 유리창에 나붙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쓸쓸하게 합니다.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점포를 열어보지만 저녁 퇴근 길에는 짜증과 실망을 안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어느 상인의 말과 함께 저는 그 상인의 얼굴 속에서 어두운 그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부족 현상은 젊은 실업자들을 대거 양산해 내고 있으며

직장이라고 해야 일시 상용직 근로자로, 직장을 찾아 방황하며 이직을 밥 먹듯 하며, 이 카드, 저 카드를 만들어 카드깡으로 살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범죄자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계 주름살이라는 말은 옛말이고 아예 가정 기반이 무너지는 사례도 늘어만 가고 가계 빚은 사상 최고인 가구당 2,90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보이는 곳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탄식의 목소리는 저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저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은 이제 저에게는 시민에 대한 범죄요 빚진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재판은 판결로 말하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WTA 세계과학도시연합회장에 재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시의 중단기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답변

사실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신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첨단산업 발전, 전통산업 발전, 신3차산업 발전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첨단산업 발전계획은 저희들이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있습니다만, 정부와 우리 시가 같이 추진하는 대덕R&D특구를 통해서 발전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전통산업은 1·2·3·4공단의 정보화 또 기술이전, 마케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히 3·4공단을 대덕R&D특구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신3차산업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영상산업 그리고 역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국제전시구역에 국제회의장을 건설함으로써 회의산업, 이번에 2006년에 국제회의장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2007년부터 열리는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3개의 WHO, ILO, ITU, 3개 국제기구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진흥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단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답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먼저, 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영안정자금 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용보증지원, 이런 것들을, 금년에도 경영안정자금은 425업체에 529억원을 1월에서 8월까지 지원했습니다. 창업강화자금은 금년 8월까지 35개 업체에 1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지원은 1,097업체에 271억원을 금년 1월에서 8월까지 지원했습니다. 판로, 마케팅 지원은 충청권벤처플라자 또 충청권 중소기업 제품 판매 기획전을 열음으로써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동안 유럽, 북미, 동남아, 중국에는 3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또 해외 유명박람회에 4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술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지원도 있습니다만 자금은 작년, 금년 17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질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점차 도산하는 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사후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시장 답변

결국은 자금과 마케팅과 경영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시행한 것은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하며 가능하면 지원액이라든지 기술이전 건수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그리고 젊은이들의 실업이 상당히 많지요?

시장 답변

예.

질 문

더군다나 지방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 지역업체에서도 얼마나 많이 받아주는지 또 그 문제와 체불임금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요?

시장 답변

예.

질 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청년실업 문제는 안중기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과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우리 시 산하 지방공사에서부터 취업, 최대한 채용을 해서 지역에 청년실업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대덕밸리에 공동체험 캠프를 운영해서 대덕밸리와 지역대학간에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불임금 해소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파산을 목전에 둔 그런 기업들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안타깝지만 해결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청과 협조해서 체불 근로자의 생계대부를 활성화 하는 방안, 또 체불임금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타부처와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이번 추석 체불이 없도록 철저히 협조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질 문

그리고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시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경제를 서민들의 피부로 느낀 바에 의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보다는 실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시장님께서 영세상인과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또 추후 추진현황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영세상인을 포함한 재래시장 활성화도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전의 재래시장이 총 26개가 있고 점포수는 3,300여개가 됩니다. 전체 유통업 점포수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지원하는 것은 아케이드, 공영주차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이런 시설을 개보수하고 확대하는데 자금 지원을 합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13개 시장, 22개 사업에 17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제 저도 개선된 뒤에 방문을 해보면 한 30% 정도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 말까지 11개 시장, 13개 사업에 110억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 사업이나 경영 현대화 사업을 촉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재래시장 시범사업으로 중앙시장과 도마시장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소기업청 추경예산 사업이 29억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태평시장, 도마시장, 변동시장, 한민시장의 환경개선과 고객편의 시설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12개 시장을 대상으로 금년 또는 작년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하면 사실 재래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정말 어렵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형유통점 신규 입점 제한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한 뒤에 1건도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1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약 2개 내지 3개가 우리 시 수요에 비해서 초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철저히 입점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래시장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질 문

대형마트의 매출 자금은 우리 시에서 자금이 이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방금도 말씀이 있으셨습시다만, 전체 유통의 14%가 영세상인들의 유통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30%가 증가했다고 하는 시장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납득이 안 가느냐 하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해보면 작년 매출액의 50%가 금년에 떨어졌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은 재래시장이 30%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전혀 납득이 가는 말씀이 아닌데 어떤 통계에 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 답변

중앙시장의 아케이드 현대화 시설을 해드렸습니다.

중앙시장 연합회장 송회장이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현대화 시설 이후에 30% 매출액이 증가되었다는 발언을 했고 제가 몇 군데 시장을 방문해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시 전체가 재래시장의 30% 이상 매출액이 올랐다는게 아니라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재래시장에는 그렇게 되었다, 회장께서 공식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얘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 문

본 의원은 오늘의 위정자들이 현 시민경제에 대하여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서는 서민의 경제 실체를 얼마나 피부로 느끼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론과 실물경제는 다르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몸소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에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답변

이점에 대해서는 심현영의원님이나 저나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가 같은 인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만 하겠습니까?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 대책을 시행해도 그분들에게 만족스럽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

시민들의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전 1·2산업단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를 보면 1·2산업단지의 위치는 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 공단은 38만평 부지로 1969년부터 1979년 사이에 조성되었으며 당시 70년 기준으로 대전인구는 41만 4,598명 정도였으나, 2003년도 말 현재 대전인구는 143만 8,778명으로 그 당시보다 무려 102만 4,180명이 증가한 그 증가율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면적 역시 1970년도 당시 88.10km²이던 것이 지금 현재 539.64km²로 약 6배 정도가 확장되었습니다.

공단의 생산성을 보면 2002년도말 1·2산업단지 내 총생산량은 1조 3,805억원 정도로 대전시의 총생산량 14조 977억원의 약 1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공간인 아파트도 20년이 채 안 되어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산업단지를 보면 20년 내지 30년이 넘는 낡은 시설로 인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공단주변의 낙후성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대전 1·2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한다면 그 부지의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인해 대전시 발전의 속도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2004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위치에 현 공단을 존치한다는 편협적인 연구보고서는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에 동승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기술협력 증진 및 활성화 방안이지 근본 대책용역이 아닙니다.

연구보고서 173쪽을 보면 환경피해 현황(김종남 2003년)에 보면 준공 후 지금까지 사후환경조사를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음을 지적했으며, 174쪽 김종남은 대화, 중리, 둔산지역 주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호흡기 질환 49%, 매스꺼움과 구토 등 소화기 질환이 23%, 만성두통과 안질환의 순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에서 박영철은 2003년도 보고에 의하면 노후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공단 활성화용역으로 임시 땀질용역이지 근본 처방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근본처방을 강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정부시책의 방향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새로운 중단기 계획에 대해서 공정한 제3의 용역기관에 용역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답변

산업단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정책이나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리모델링 정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산업단지는 과거에는 대전의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대전의 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1·2산업 단지를 그 자리에 존치를 시켜야될 것인지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현재 1·2산업단지 입주기업 또 1·2산업단지협회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산업단지 입주기업도 둘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지난번 조사를 해보니깐,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니깐 65개 업체가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38개 업체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25개 업체는 현재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1·2산업단지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 문

그리고 1·2산업단지에 대한 대전발전연구소의 용역보고서를 보시고 시장님이 보실 때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보시는지요?

시장 답변

그 용역보고서에서는 지금 현재 1·2산업단지를 이전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의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원님처럼 이전을 전제로 한다면 그 용역보고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원님께서도 그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만큼 또 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와 관계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질 문

이전을 원하는 업체가 38개고 그대로 존치를 원하는 업체가 25개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업체들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시장 답변

1차적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그 자리에 존치를 원하는 사람도 대안이 좋으면 이전으로 또 생각이 바뀔테고, 또 대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도 그대로 또 존치를 할 것이고, 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 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 문

그리고 공단주변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답변

이미 3·4공단은 악취저감용역을 1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충남 대학에 있는 환경기술개발센터와 또 주민과 시민단체가 같이 참여 하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60%를 저감하는 목표로 거기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이 60%까지는 저감을 하겠다 그래서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공단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법적인 기준으로 7개나 9개 정도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많게는 100가지 항목에 대해서 악취 제공하는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1·2공단에 대한 용역결과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주변환경 개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지요?

시장 답변

주변환경 개발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 문

공단주변의 개발이요, 공단주변에 공단으로 인해서 열악해
가지고 모든 민간개발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 용역에?

시장 답변

용역은 지금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입니다.

질 문

아니,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공단주변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공단주변 개발도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 답변

글쎄, 공단주변 개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그리고 이 공단 토지의 현재 평당가는 얼마라고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장 답변

저는 부동산의 정보에 대해서 어두워서 잘 모르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공시지가는 평당 한 70만원에서 90만원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질 문

아마 공단이 이전될 경우에 예상되는 평당가격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까만 예산을 해보셨습니까?

시장 답변

그건 아직 어떻게 예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질 문

그러면 이 공단에 대해서 기획팀의 획기적인 검토를하실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로 봐도 좋겠습니까? 그냥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그 시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답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왜냐 하면 만일 이전으로 결정됐을 때는 대체부지 확보, 그 대체부지 확보에 행정절차만도 1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입주기업과의 의견조율, 또 그런 대체부지 확보,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2공단을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하는 것이 또 확정된 상태도 아니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미 1·2공단 연합회 측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

본 의원은 공단을 원점에서 용역 검토할 수 있는 대전시의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오늘 당장에도 기획팀에 말씀하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옮겨서 하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용역을, 과거에 우리 시에서 한 용역은 존치하는 것으로써 용역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검토하는 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답변

1·2공단을 외부로 이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재산에 많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어떤 대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 문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시에서 용역검토를 어느 시점에서 하실 수 있는지 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답변

용역 이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장 답변

예.

질 문

용역 준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자체?

시장 답변

예, 용역이전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 문

용역을 쫓습니까?

시장 답변

안 쫓습니다.

질 문

용역을 언제쯤 줄 계획인가요?

시장 답변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질 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언제쯤 주겠다 확실한 답변을?

시장 답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 무슨 질문을 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언제, 그럼 2010년도에 가서 검토한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쯤 용역을 줄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을?

시장 답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아까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한 행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시장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조직이 해야 되니까 조직에서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그 쪽과 접촉을 합니다.

그 단계니까 그 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역의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이 이것을 ‘이번 달부터 용역해라, 다음 달부터 용역해라’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것은 해당자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

관계부서에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시장 답변

용역은 거의 사업의 윤곽과 목표가 결정된 뒤에 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 전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 문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대안으로 현 산업단지부지를 주거 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자율적인 이전을 유도하거나 토지공사 및 행정기관과 대기업에 컨소시엄 참여를 통하여 개발하거나 대체 공단부지를 조성하여 자율적인 이전을 유도하는 등 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본 의원은 1·2산업단지로 인한 피해시민 약 30만 명과 더불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셋째로 대전광역시도 중핵도시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인근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명실상부 중부권의 최고도시로서의 중심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감당키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도 사실입니다.

대전을 축으로 서남쪽은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를 비롯하여 북으로는 조치원, 천안, 청주가 있는가 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가 확정되었고, 남으로는 옥천, 금산 등이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중심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중부권 최고도시로서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잠깐만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답변

조금 전에 질문하시면서 1·2산업단지로 피해보는 30여만 시민들과 강력하게 대처한다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피해주민,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그런 것은 악취저감대책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른 대토를 해서 옮기는 것이 더 적합한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리고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는 이미 공주, 연기로 예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은 배후도시로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신행정수도를 건설했을 때 역사와 전통과 혼이 깃든 배후도시가 있을때 성공했고, 배후도시가 없을 때는 실패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를 위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대학들과 협의해서 교육·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신행정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 문

요즘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 완화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해 주십시오.

시장 답변

사실은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건설하고 그 대신 수도권에 개발제한을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균형적인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됐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수도권공장 입주 완화 같은 시책을 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그대로 남게 하는 결과가 되고 또 지방의, 꼭 대전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장들이나 기업이 수도권으로 다시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극적으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이 R&D특구 구성 등 경쟁력을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대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열린마음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질 문

열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지만 열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호남과 연계발전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답변

저희는 충청권, 충남·충북·대전의 연계발전방안 같은 것, 인프라 확장 같은 것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영호남과 연계 발전계획까지 수립하지는 못하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 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오보를 심현영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신문을 그 이튿날 해명하는 신문도 봤습니다. 봤는데 오해와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요?

시장 답변

그때는 무슨 이야기였느냐하면 신행정수도 관련 특위구성에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니까 시장이 작용해서 심의원님을 배제했다는 그런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회의가 끝난 뒤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풀어드린 것입니다.

질 문

아니, 신문에 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첫날 말씀하셨을 때 언론에서 쓴 내용과 그 이튿날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그렇게 들렸으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오해와 해명에 대해서 교수 출신으로서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오해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오해이고, 해명은 잘못된 사안이 공포됐을 때 바로잡는 것이 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오보는 무엇입니까?

오보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오보를 보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공개석상에서.

시장 답변

지금 심의원님이 왜 시정질문 석상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묻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였느냐면 심의원님이 신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그 다음날 그것이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기사가 난 뒤였습니다.

질 문

예, 맞습니다.

시장 답변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구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 반대논리를 홍보한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그 다음날 기사에서는 아니라고 해명기사가 났었습니다.

질 문

저는 시장님과 열린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답변

예.

질 문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 답변

예, 압니다.

질 문

시장님이 행정수도에 대해서 세 단체장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많은 의원들에게나 지역구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정당인으로서 정당정책노선과 같이 하는 것이 정당인의 도리인 것으로 본인은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정당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당론이 나오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다른 대안이 제시될 경우 시장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신지요?

시장 답변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전에는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단체장과 열네 분의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열네 분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역의 의견을 전달하고 항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도 세차례에 걸쳐서 중앙당을 방문해서 고위당직자들에 강력한 시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고, 두차례에 걸쳐서 12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께 한나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편지를 낸 바 있고,

내일은 한나라당 신행정수도 관련된 의원들을 다수 대전시에 초청해서 신행정수도 총청권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고 가능하면 현장견학을 통해서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활동이지 그 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질 문

지난번에 행정수도가 당론과 배치됐을 때 중대한 결단을 내리신다고 하신 바 있지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답변

당론과 배치됐을 때가 아니라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신행정수도 이전이, 제가 그때 쓴 용어가 있는데, 이전이 무산됐을 때 그러니까 이전이 안됐다,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이전이 어렵게 됐을

때는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 문

그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답변

그것은 당시 상황에 따라서 수위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일단 제일 큰 뜻은 한나라당에 압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수단이 제일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정말 저희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정도로 행보를 하신데 대해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절대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열린 마음으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답변

예, 알고 있습니다.

질 문

우리가 시장님께서 더 분발하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청권의 3대 광역시장님이 새로운 충청권을 대변하는 정치 질서를 창조하는 중심이 됐으면 본인의 바람을 전달하면서,

넷째, 자치구 개발편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 산업기반의 원동력인 대덕구는 더 이상 소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은 삼남의 교통요충지로 경부와 호남 고속도로, 경부·호남선 철도, 1·2·3·4 공단 등이 대덕구에 위치하여 교통 및 공단으로 인한 소음 및 공해로 민원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또한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로 인하여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구와 유성구는 신흥개발지와 국책사업인 연구단지,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활성화와 역세권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개발의 힘찬 도약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는 어떻습니까?

대전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낙후된 대덕구에 시장님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대덕구에 대형사업이나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시장 답변

예, 하도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석봉가도교 확장공사에 169억원 투자해서 4차로는 지난 7월에 일부 개통되었고, 6차로는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내동에서 와동, 신탄진선 6차 확장공사는 19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32건의 각종 사업에 1,200여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도시계획용도변경 9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보훈 병원 진입로 개설, 신탄진 문화거리 확장, 상서동 매립지 생태 공원에 39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 문

다음은 오정동 위생처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정동 위생처리장은 1977년도에 설치됐으며 그 당시만 해도 대전 변두리에 위치해서 별 문제가 없었으나 27년이 지나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 위생처리장의 악취발생은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커지면서 민원의 소지가 있었으며,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가화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주변에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 및 지역발전 장애 요소로 대덕구에서 다섯차례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난 2001년 4월 27일 회신한 바에 의하면 5단계 하수처리장 완공 후 연계처리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5단계 하수처리장은 2006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하수처리장의 완공시기가 변경되어 2016년경에 완공이 예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검토하신 것보다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약속하신 대로 2006년도에 검토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

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999년 2월에 수립됐는데 그때는 2006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 소비량이 감소되었고, 현재 하수발생량이 처리 용량에 비해서 78.1% 수준이기 때문에 재작년 8월에 5단계 처리장 건설 타당성 조사에서 2015년으로 완공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질 문

그러면 변경된 5단계 완공예정인 2015년도에 가서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답변

그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 아까 1·2 공단 이전 문제 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5단계 처리장 타당성 조사는 201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그 때 5단계 하수처리장 공사의 적정시기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요, 저희가 참 답답해서 그러는 데요.

시장 답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대체부지가 있어서 옮기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만 부지마련도 어렵고 또 공사비의 문제도 과다하게 들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 이것을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저감이라든지 환경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잡물 처리기, 탈취탑 교체, 세차시설 등 해서 한 16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질 문

그곳에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두개 관공서가 옮기려고 하던 것이 잘 안됐지요?

시장 답변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별도로 말씀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 문

대덕구민들은 거기에 두개 사업소를 옮기려고 하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이런 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관공서도 있는데 무엇이 불편하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건의 사업소의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유보된 것이 있지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호 기획실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박성호 기획실장님께서서는 행정고시출신으로서 장래가 상당히 촉망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시다만 시장님 혼자하는 사업이 아닌 고로 기획관리실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뒷받침을 해서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 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 문

앞으로 기획실장님 같은 분들은 앞으로 장관도 하셔야 하잖아요? 유능한 분들이 말이에요, 좀 잘 해보십시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질문시간 관계로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질 문

교육감님께는 그냥 요지만 대강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교육현장을 보면 교육 홍국에서 교육 망국으로 가지 아니할까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는 인적자원의 나라로 교육이 이 나라를 성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혼선에 혼선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또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교육계나 학부모 모두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의 내용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와 의회는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의결함에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지속사업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중단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저 동녘 하늘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더욱 활성화되어 미래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대전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듭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질문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뒤편에서 묵묵히 참고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교육감님께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5대 교육감님인가요, 거기에 신문에도 자꾸 중립을 지키라고 많이 말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공명정대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새로운 입시제도와 관련,
새로운 입시교육 제도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서면답변

2005학년도 대학수능시험(11월17[일])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 중3 학생부터 적용되는 새 입시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설명하게 되어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고교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밖에서 학교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 확대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점수와 더불어 과목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하고, 석차등급은 지금의 수,우,미,양,가의 5단계에서 1~9등급까지 9단계로 세분화하여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제를 가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의 교과영역과,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충실히 기록하여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이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나친 석차 경쟁이 줄어들고 교과 교육이나 독서활동 등의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입니다.

현재 수능성적표에 기록되는 백분위점수와 표준점수를 없애는 대신, 수능성적을 영역별로 9등급으로만 나누어 제공하고, 출제 방식을 함축출제에서 문제은행식 체제로 바꾸며, 수능시험을 연 2회 실시하거나 이틀동안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수학능력 정도를 가름하는 시험, 이를 통해 수능 점수 1~2점을 더 따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덜 수 있으며, 수능 성적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어 재수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 선발의 특성화·전문화·다양화입니다.

대학별로 입학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을 별도로 채용·운영하도록 하여 대입전형의 전문화 체제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고 동일계 특별 전형을 도입하여,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권장하고, 사회 통합을 위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이 대학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외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평가적 요소가 강한 9등급의 석차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무엇보다 교육과정 정상화로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가 많이 줄어들고, 학업성적평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그대로 실시되고, 대학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때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예상대로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교 등급제는 고교간의 수준차를 인정하여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자는 것이지만 이는 개인의 성적이 학교의 수준, 선배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대학에서 임의로 고등학교의 등급을 정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비중을 늘리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나 대학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시모집이라는 이름으로 입학정원의 50%에 가까운 인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면질문

사립학교의 법령 개정과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은 처벌은 강화하되, 자율권은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서면질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학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개혁과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직면해 있으며, 사학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학은 공학과 달리 독자적인 건학 이념을 지니고 설립·운영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 교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특히 해방이후 교육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를 수용할
만한 여건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사학이 그 부족한 부분을 담당
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학비리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 사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의 여기 저기 각계에서 사학에 대한 비난과 함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공식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확정 발표된 것이 없고, 논의 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교육감의 입장을 표명할 처지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과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개정방향은 사학이 국가의 정책에 반하지 않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면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면질문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대전교육 대처방안
변화하는 새 제도에 대전교육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서면답변

의원님께서 평소 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전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펴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수업의 질 개선입니다. 경쟁력, 교원의 존립근거,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업능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방법 연수를 강화할 교실수업 개선 계획입니다.

또한 학업성적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점검·지도체제를 확립하고,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장학지도를 통해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지도·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독서교육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창조적 지식인이 우대받는 사회이고, 지식 정보의 양은 독서의 양에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에 창조적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서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독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이버 독서방을 운영하여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까지 176개 초·중·고교에 학교 도서관의 정보화 및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활용도가 높은 신개념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활동에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독서를 통한 다양한 능력의 신장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진로·진학지도 방향을 연구하여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 유익한 정보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학력신장기획단에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교육본질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방향을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학생·학부모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의 '대학입시' 사이트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입시제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서면질문

인성교육과 관련,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의 초점은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지요?

서면답변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이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인성교육은 『도덕성과 인간적인 덕성 함양의 내실화로 세계 속의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 육성』에 기본 목표를 두고 참여·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기초 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효행 체험의 날』을 운영하며, 학교내 생활 예절실 및 사회교육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기본예절, 전통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3다 3무 운동 전개, 집단 상담 및 인터넷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우수지도 사례 공유 사이트 운영 및 『행복한 학교 만들기』지도 자료 개발·보급·활용으로 학생과 교사가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장, 판사, 검찰, 경찰, 경력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봉사활동, 도·농 교류 체험, 사회기관 방문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 함양과 민주사회에 대한 안목을 길러 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 급별로 테마중심의 소규모 단위 수련, 야영, 극기 활동 등 공동체 의식 함양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영화, 비디오, 명화 감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특색에 맞는 학생 중심의 축제를 개최하며, 본청 강당을 영화관으로, 교육청 실내 공간을 체험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평생학습관에서는 문화강좌 개최와 전통 생활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예절과 정서순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시가 주관하는 복지만두레 활동에 2004년 5월말 현재 중·고등학교 515학급 7,475명의 학생이 287명의 독거노인과 결연하여 연중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45개의 중·고등학교를 봉사활동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관저고등학교가 기관표창 국무총리상, 신탄진중학교 학생이 장관상, 대전관저고, 충남고 학생이 금, 은, 동상을 받는 등 봉사분야에서 우리 교육청의 학생들이 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체험 중심의 환경 교육도 아울러 강화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춘 바른 인재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은?

서면답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편단심 각오로 금번 제139회 임시회에서 『중국 고구려사 왜곡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신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고구려사 왜곡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정부 산하의 공식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2002년 2월 선포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란 고대 중국의 동북쪽 지방에 자리 잡았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에 대한 역사 연구는 물론,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연구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배경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한국열풍이 불고 있고, 장차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닿을 경우 독립 및 자치권 쟁취 운동을 벌이고 있는 티베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통하여 미리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에서의 국사교육은 초등학교는 사회시간에, 중·고등학교는 국사시간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밖에도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국사와 관련된 탐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더 허구적인 것으로, 고구려사는 명백히 우리의 역사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들은 중국의 역사왜곡을 억지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역사교과 세미나 장학을 통하여 이 문제를 집중 토론하였고, 국사 교사들로 하여금 국사 수업 시간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구려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국사 교육을 강화할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사와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대전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응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문 학자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사 연구에 대한 남북한 공동연구나, 국가적 차원의 고구려사 연구기관 설립, 고구려사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그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심어 주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하여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교과교육 연구를 하도록 하고, 바람직한 역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직무연수, 초청강연, 학회 참석 등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서면질문

제5대 교육감 선거에 따른 공직자 중립대책과 관련,
제5대 교육감 선거는 현 제도대로 시행하는 건가요?

서면답변

우선, 제5대 교육감선거가 화합과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선거문화로 정착되기를 소망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 안병영 교육부총리께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금년 12월 대전교육감선거는 새로운 방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면 사전에 각계 각층 및 교직단체의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기본 골격이 완성되면 입법예고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면질문

공무원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장이 학부모나 교사에게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서면답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고 대전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교육감을 모시기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금년 7월초순경에 『공명선거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고, 교육감선거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2004. 7. 19. 후보예상자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본청 각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추진계획』 설명회와 학교운영위원·후보예상자·학교장 및 교직원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교육감 서한문발송, 각종 회의시 각급학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감선거관련 공명선거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본청에 『교육감선거불법행위신고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불법선거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에는 『외부인사방문일지』를 비치토록 하여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기록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자들의 제한된 선거법, 즉 선거운동기간이 10일밖에 안되고 선거운동방법이 선거공보의 발행, 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 토론회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입장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선거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려는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이번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외고 부지 처리대책 관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는 몇 평인가요?

서면답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면적은 381평입니다.

서면질문

이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요?

서면답변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의 운동장 면적이 2,346평으로 타 학교보다 비교적 큰 편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면적 381평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육장이 1,965평으로써, 이는 최근에 신설된 둔원고등학교의 1,347평, 구봉고의 1,771평보다는 훨씬 더 크고, 지족고 1,960평, 노은고 1,961평과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학급수가 비슷한 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외국어고등학교는 381평이 없어도 체육장 기준에는 아무문제가 없으나 학생들이 좀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3년 후에 매수해 주는 조건으로 학교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토지사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 사용을 하었는데,

현재 돈운학원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381평만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매입이 불가능한 공원용지 2,460평과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나 절벽으로 이루어진 활용가치가 없는 임야 2,733평을 합하여 5,574평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차가 너무 커서 협의 매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매수하려고 현재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돈운학원에서 팔려고 하는 토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서 매각을 할 경우 그 대금을 직접교육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학교시설비 등으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청에서는 현재 점유된 381평만을 매수하고, 나머지 토지는 학교법인 돈운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돈운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시설비 등의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면,

돈운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그 자체는 그대로 관리하면서 매각하려고 하는 만큼의 시설비등을 교육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교육청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매입해서 관리한다는 부담을 덜을 수가 있어 돈운학원과 교육청이 서로 좋은데, 돈운학원에서는 그 토지를 팔아서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영 의원님께서 교육의 본질부터 현안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교육에 대하여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따뜻한 교육애와 변함 없는 격려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